

배포 일시	2022. 9. 21.(수)		
담당 부서	국토정책관	책임자	서기관 정승수 (044-201-4733)
	국토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세환 (044-201-4731)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.

< 보도내용 ('22. 9. 20. 파이낸셜뉴스) >

◆ “제2 판교 꿈꿨는데...” 지방 광역시 ‘도심특구’ 지지부진

- 기선정된 4곳은 기본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고, 울산은 후보지 선정 못한 상황
- 특별법안은 발의된 지 1년 이상 국회에서 표류

□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도심융합특구 선도지구 4곳을 선정\* 하였으며,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예산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

\* 광주광역시,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대전광역시

□ 국회에서는 도심융합특구 관련 2건의 제정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, 국회 심의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가 지역의 새로운 혁신거점으로 성장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